

현대중공업(주)

중소 인력 양성 본격 시작

사내 기술교육원서 무료로 직업훈련 실시
교육생 전원, 협력회사 취업 100% 보장

現代重工業(대표: 崔吉善)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우수 근로자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해 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선정된 현대중공업은 최근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지난 2월 11일부터 사내 기술교육원에서 직업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이란 모기업이 중소 협력회사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대신 양성해 주는 제도로 3D 업종 기피현상 등 중소기업체의 생산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발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8주간 용접, 전기, 도장 등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교육을 수료한 후 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맺은 100여개 협력업체에 전원 입사하게 된다.

이들 교육생들은 교육받는 동안 수당과 숙식이 제공되고 모든 교육경비를 현대중공업에서 부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 수

료 후 미국 선급협회(ABS)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측은 “앞으로 매월 수시로 교육생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YMCA 등과 연계해 교육생 정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現代重工業 사내 기술교육원은 1972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8만여 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했으며, 세계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34명을 포함 총 55명의 입상자를 배출하는 등 국내 최고의 시설과 강사진 및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LG산전(주)

**협력업체와 동반 1등주의 실현
협력업체 혁신활동 프로그램 가동**

LG산전(대표: 鄭炳哲)이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에 자사 혁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협력업체 겨안기에 나섰다.

LG산전이 가동하는 AC프로그램은 LG산전 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에 LG산전의 혁신 전문가가 3개월간 파견되어 특약점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 △판매역량 강화 △사고행동 변혁을 추진하는 활동이다.

혁신 전문가는 특약점에서 고객 만족 향상 활동, 신규고객 개척활동, 업

무효율 극대화 활동, 재무개선 활동 등을 통해 특약점의 경영체질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G산전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확보는 기업과 협력업체 모두가 혁신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이번 활동은 기업과 특약점이 동시에 1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Win-Win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LG산전은 이번 프로그램은 4개 특약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조만간 200여 개의 모든 특약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KDN(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완료**

전국 16개 공항의 계기착륙장비 등 140개 시설물 통합 감시

한 국전력 계열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전KDN(사장 李桂淳)은 전국 16개 공항, 8개 항공무선표지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항공안전 시설의 운영상태를 통합 감시함으로써 장애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 김포공항에 설치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전KDN이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로서 전국 공항별 기상정보와 비행정

보구역내 항공기 위치정보는 물론, 전국 각지에 설치된 계기착륙시설 레이더설비 표시시설 등 항행안전에 필요한 140개 시설물의 동작상태까지 종합상황판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 시스템은 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양양, 강릉, 예천, 목포, 청주, 원주 인천공항 등 모두 16개 공항과 안양 강원 부산 포항 제주 예천 대구 양주 등 8개 항공무선표지소의 각종 항행안전 시설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장애 발생이 없도록 최적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로서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전력계통의 시스템 통합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시스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국 단위의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처 기력 1호기 500일 장기 무고장운전 달성

한 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처(처장: 고봉우)는 기력 1호기가 지

난 1월 25일 03시 04분에 500일(2000. 7. 10~2003. 1. 25: 1만 2000시간) 장기 무고장운전(LTTF)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처장을 중심으로 전직원 및 관련업체가 한마음이 되어 취약설비 보강, 지식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인적실수방지를 위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원가마인드 고취가 이루어낸 결과로서 김영철 사장은 “이번 LTTF 달성은 제주화력발전처 전직원 및 한전기공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것”이라며 전직원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LTTF 연속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제주화력이 무고장운전에서도 중부발전이 최고 발전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 최소 수전, 모의제어반 가동 및 종합사무실 착공식 시행

한 국남동발전 영흥화력건설처는 지난 2월 5일 윤행순 사장과 본사 건설처장 및 12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 수전, 모의제어반 가동 및 종합사무실 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치사에서 윤행순 사장은 발전소건설 경쟁력 및 품질확보, 안전사고 제로화,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지역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발전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했고, 행사 후에는 터빈설치현장 등을 순시, 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착공식을 가진 영흥화력 1,2호기 종합사무실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327평 초 현대식 오피스건물로서 2004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중에 있다.

또한, 기동용 변압기를 포함한 수전 관련 전기설비는 작년 1월부터 공장에서 제작하여 7월부터 현장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작년 12월 30일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수전설비인 154kV 특고압 케이블은 일진전기에서, 기동용 변압기는 현대중공업에서, 전기설비감시 제어반은 YPP디지털에서 제작 설치하였다.

모의제어실은 작년 9월 1일 설치를 시작하여 오늘 첫가동을 하게 되었으며, 모의제어실의 Hardware는 두은 시스템에서 Software는 호주의 테컴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

제2차 자율혁신팀 전사 경진대회 개최

남부발전 경영혁신 차원에서

한 국남부발전(대표 이임택)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 전개와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차 자율혁신팀 (Study Group) 전사 경진대회를 지난 2월 6일 하동화력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각 사업소를 대표하는 우수 혁신팀(10개팀)들의 경합 결과 대상(1), 금상(1), 은상(3), 동상(3), 장려상(2)이 수여됐다.

영남화력 '그린파워팀'이 '오리멸전 연료전환사업 공법 개선'이라는 혁신 과제로 대상을, 하동화력의 'Make Better팀'이 '터빈오일 프리싱 방법 개선'을 통한 공기단축' 과제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임택 사장은 사례발표 후 강평을 통해 직원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수익성을 겸비한 사례들이 많이 도출된 점에 대해 만족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팀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소개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제주에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한 국남부발전은 제주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오는 2007년

까지 남제주군 일대에 시설용량 200 MW에 달하는 대형 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월 12일 제주지역의 전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379억원을 들여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남제주화력 구내에 100 MW급 2기가 들어서는 남제주화력발전 3·4호기를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이 건설키로 한 남제주 화력발전 3·4호기는 중유전소의 드림형 자연순환 발전소로 공사기간은 각각 3년 1개월, 3년 7개월로 예정돼 있다.

남부발전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월과 7월에 교통·환경 영향평가 및 후속기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11월에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에는 건설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남부발전은 2003년 3월에 설계기술 용역을 계약하고 내년 초에는 주설비 공급 및 건설공사를 발주, 2004년 3월까지 주기기 공급자와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나아가 공사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3호기는 2007년 6월, 4호기는 2007년 12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전력수요 성장률이 육지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전력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신규설비를 건설하지 않으면 2006년경부터는 설비용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전력공급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은 오는 2007년 남제주 화력발전 3·4호기가 완공되면 연간 발전량이 14억 8,920만kW에 달하게 돼 2000년대 후반 제주지역의 전력공급이 안정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대금 성공적인 결제 수행

한 국전력거래소는 2003년 1월 1차수 전력거래대금 2290억원에 대하여 전력거래소가 결제기관이 되어 정상적으로 결제를 수행하였다.

지난 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CBP(변동비반영시장)에서도 전력거래대금 결제를 거래소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1월 1차수(거래기간 : 1월 1일~1월 5일, 5일간) 총 거래대금이 휴일을 감안하여 2월 3일 거래소와 기업은행이 공동 구축한 결제이체시스템(Firm Banking 시스템의 일종)을 통하여 결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전 회원사에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체제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1차수 결제대상 회원사는 판매회원사인 한전 1개 및 발전회원사 40여개, 총 41개가 회원사이며 향후 직접구매회원 및 소규모 발전회원사가 꾸준히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아무튼 거래소를 중심으로 총 전력 거래대금 결제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은 전력거래소 업무역할 및 거래소와 회원사의 관계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운영처 정산팀 일동은 전력거래대금 흐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개선 탁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으로 인하여 2002년 한해 동안 중앙난방과 비교하여 약 53%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약 23%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49%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난방 효과는 2001년도에 동 공사가 건국대학교 선우연 교

수팀에게 의뢰한 “지역난방방식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 분석” 영역의 결과를 적용, 2002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한해 동 공사가 전국의 69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사용한 연료량은 총 59만TOE(석유환산톤)이었고,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이 중앙난방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량 125만 3000TOE(석유환산톤)과 비교할 때 약 53%인 66만 3000TOE이 절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4,156억원의 연료비용이 절감되었다.

또한, 원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첨단오염방지 시설운영으로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1,012TOE을 저감시키고,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의 경우 중앙난방 대비 49%인 143만 1000TOE을 저감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이 이처럼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것은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쓰레기 소각열과 매립가스(LFG) 등 미이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공사 전 임직원은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 효

과가 큰 지역난방의 확대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Moody's社로부터 신용등급 A3 획득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Moody's사로부터 기존의 “Baa2”에서 두 단계 상향 조정된 “A3”를 획득하였다.

이번에 한수원이 획득한 “A3”는 국가신용등급과 같고 국내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 KT, SK텔레콤 보다도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또 다른 해외 유수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사로부터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을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은 이번 신용등급 획득으로 우수한 재무구조와 높은 경영효율성 등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2001년 4월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전문회사로서 자산규모 20조에 국내 전력공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해 2015년까지 10기의 신규원전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